

## 組織理論과 組織心理學 理論

鄭 良 殷

서울大學校 心理學科

社會科學의 個別領域에서는 社會組織에 관한 學問的 關心이 오랜 歷史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와는 對照的으로 社會組織一般에 관한 基礎理論을 定立하려는 努力은 比較的 最近에 擡頭되었다.

社會科學 중에서 가장 일찌기 社會組織에 關心을 가진 分野는 政治學이다. 政治學은 人間의 社會組織 중의 하나인 政治組織에 관한 理論과 體系를 確立하는 學問이다. 政治組織이 人間社會에 언제 形成되었느냐 하는데 관해서는 意見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Wundt 는 그의 民族心理學의 제 7 권 社會編에서 法이 確立되고 國家가 形成되므로서 비로소 政治組織이 그 모습을 갖추었다고 했다. 이 見解에 따르면 政治組織은 法體系가 마련되고 歷史가 傳해진 時代에 나타난 社會組織이다. 勿論 歷史가 傳해지지 않은 先史時代에도 政治組織에 相應하는 社會組織이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그 組織이 法の 論理的 體系를 根據로 하고 있지 않으므로 政治組織으로 看做될 수 없다. 法에 뒷바침된 政治組織에 관한 政治學的 理論들은 國家를 形成하고 維持하며 發展시키기 위한 制度的 組織이 갖는 理想型을 思索하고 그 論理的 根據를 確立하려는 學問的 努力이었다. 初期의 政治學에서 發展시킨 組織理論들은 Plato의 유토피아 思想에서 보는 바와 같이 政治組織에 限定된 理論이었을 뿐만 아니라 現實的으로 存在하는 實體로서의 政治組織을 實證的으로 究明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政治學的 組織理論을 政治組織 以外の 社會組織들 또는 社會組織一般에 一般化하여 適用할 수 있다는 保障이 없다.

政治組織이 人類歷史와 더불어 主된 學問的 關心의 焦點에 浮刻되었지만 政治組織이 人間社會의 唯一한 社會組織이 아니며 또 가장 오래된 社會組織도 아니다. 人間이 社會生活을 營爲하기 시작한 아득한 先史時代에서 부터 人間社會에는 여러가지 社會組織이 形成되었다고 推測할 수 있다. 그러므로 社會란 單純히 個人的 集合體라기 보다는 組織의 綜合體로 把握될 수 있다. 政治

組織이 形成되기 이전에 있었던 社會組織의 例로서 生産組織, 宗教組織, 軍事組織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들 社會組織들은 文明社會에서는 여러가지 複合的인 組織으로 發展되고 있으므로 그 原始的인 原型은 現存하는 原始社會의 社會組織에서만 찾을 수 있다.

原始的인 生産組織의 例는 Wundt의 Horde에서 볼 수 있다. 그에 의하면 Horde는 蒙古族의 社會組織이며 아직 家族이 形成 分化되지 않는 組織이었다고 한다. 蒐集과 狩獵이 唯一한 生産手段인 社會에서는 가장 效果的인 生産을 위해 Horde를 形成하여 場所를 옮겨가며 生活하였다. 社會組織이 Horde의 形態를 갖는 社會에서는 法體系를 갖춘 國家가 形成되지 못하고 오로지 生産集團으로서의 群集만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農耕時代에 접어들어 一定한 場所에 定着하게 되므로서 Horde의 組織은 消滅되고 다른 社會組織으로 代置되었음은 當然한 일이다.

宗教組織으로서의 原始社會의 祭祀制度(Kalt)를 中心으로하는 社會組織을 들 수 있다. 宗教組織은 祭祀制度의 儀式을 통하여 個人을 組織化하여 社會를 維持한다. 文明社會에서는 個人的 行爲를 政治組織이 統制했지만 先史時代에는 주로 宗教組織이 그 役割을 담당했다.

軍事組織의 始初는 獨身男性組織(Männeshaus)에서 찾을 수 있다. 男性들을 年令에 따라 區分하여 同居生活을 하도록 組織한 集團이 獨身男性組織이다. 이런 社會組織은 北美 原住民社會에서 觀察된다. 男性組織은 주로 敵의 侵入에 對處하거나 猛獸와 같은 天敵에 對抗하기 위한 現實的 必要에 의하여 發達되었다. 男性組織은 Horde와는 달리 種族全體의 群集이 아니라 特定年令의 男性에게 局限된 社會組織이다. 따라서 居住를 옮겨가는 遊牧生活이 아니라 婦女子나 年老들을 保護하기 위해 發達된 社會組織이다.

이같은 社會組織 以外에도 先史時代에 여러 社會組織이 있었을 것으로 推測되고 또 歷史와 더불어 發達한 時代에도 政治組織 以外에 比較的 獨立的인 社會組織들이 存在했고 또 存在하고 있다. 例를들면 教育組織, 商業組織, 娛樂趣味組織 등의 數많은 社會組織은 한편으로는 政治組織을 비롯하여 宗教組織이나 生産組織 등과 有機的인 關聯을 맺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各己의 獨特한 屬性을 지니면서 人間社會에 共存 또는 並存하고 있다.

이같이 많은 種類의 社會組織이 있었음에도 不拘하고 唯獨 政治組織만이 組織의 屬性의 次元에서 學問的 研究의 對象이 되어왔다. 政治組織 以外의 社會組織에서는 組織自體의 屬性보다는 그 組織이 目的하는 內容이 더 많은 關心을 끌었다. 宗教組織에서는 宗教集團의 組織보다는 宗教的인 信仰의 深度와 擴散에 더 많은 強調를 두었다. 生産組織에서는 組織自體가 어떤 것이던 生産이란 目標에 到達하기만 하면 되었던 것이다. 이같이 많은 社會組織들

을 對象으로 하는 學問들이 組織自體의 문제를 等閑視하였는데 政治組織에 대해서만 唯獨 組織研究가 發展된데는 몇가지 理由를 생각할 수 있다. 그 첫째는 政治組織이 文明社會의 歷史와 더불어 形成된 社會組織이라는데 理由가 있다. 政治組織 以外の 社會組織으로서 先史時代에 存在했던 것들은 歷史적으로 傳해 질 수 없었으며 文明社會에서는 그 純粹한 形態로 存在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社會組織의 實體를 理解하기 위해서는 人類學이나 民俗學에서 現存하는 原始社會의 社會組織으로부터 類推적으로 推論할 수 있을 따름이다. 둘째 理由로는 政治組織이 國家의 形成과 더불어 存在하기 始作한 社會組織이었다는 事實에 있다. 國家는 法의 體系가 成文化되므로서 成立되었다. 法에 의하여 個人의 行動이 規制되는 制度和 組織만이 政治組織이다. 國家가 形成되기 以前에도 政治組織에 相應하는 社會組織이 存在했다고 推測될 수 있지만 이런 組織은 法體系를 基盤으로 하여 成立된 社會組織이 아니었으므로 政治組織이 아니다. 이같은 政治組織 以前의 組織은 法 代身에 慣習(Sitte)에 의해 個人을 規制하였다. 그런 社會에서는 慣習을 관장하는 社會組織이 政治組織에 相應하는 役割을 담당한다. 이런 社會에서는 宗教組織이나 生産組織이 政治組織의 役割을 대행하였다. 세째로는 政治組織의 土臺가 되는 法의 體系를 發展시키기 위해서는 社會組織에 관한 論理的 方法論이 成熟되어야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法은 慣習과는 달리 論理적으로 一貫性있고 妥當해야 한다. 이는 法이 普偏적이고 合理的이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慣習은 法과는 달리 반드시 合理的인 것만이 그 內容이 되는 것이 아니고 또 普偏적인 妥當性を 要求하지도 않는다. 다만 慣習이 適用되는 社會에서 그 規制的 屬性이 維持되고 또 尊重되기만 하면 된다. 따라서 慣習은 具體적인 體驗을 그 內容으로 하는 生活感情의 反映이다. 이같이 慣習의 存在根據가 生活感情에 있고 論理的 合理性에 있지 않기 때문에 慣習을 繼續적으로 存續시키기 위해서는 學問적인 研究보다는 生活感情의 補強이 要求된다. 여기에 宗教의 必要性이 생기며 宗教組織이 慣習의 保存을 위한 補強作用을 하는 機能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國家가 形成되기 以前의 人類社會는 宗教組織에 의하여 規制된 社會라 하겠다. 이와는 反對로 法은 國家成立의 前提로서 生活感情보다는 論理的 妥當성과 一貫성에 根據한다. 따라서 法體系의 形成에는 論理的 思考를 하는 學問的 方法論의 發達이 必須적이다. 國家形成을 위한 現實적인 要求가 法을 必要로 하고 따라서 法體系를 追究하는 學問的 方法論이 發展하게 되었는가 아니면 人間의 知的 能力이 論理的 思考를 할만큼 發達했으므로 法體系를 定立하여 그 結果 國家를 形成하고 政治組織을 確立시킨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한 對答은 미루어 두더라도 어쨌든 學問的 方法論의 發達과 政治組織의 形成과의 사이에는 不可分의 關係가 있음을 否認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어떤 社會組織보다 政治

組織이 學問의 努力의 對象으로 優先했다는 事實은 理解될 수 있다.

事實 社會科學領域에서 學問發達の 始初를 이룬 Plato 나 Aristoteles 를 위시하여 그 以後의 모든 研究는 政治組織의 研究에 集中되었다. 이들의 努力은 現存하는 政治組織의 實體에 관한 經驗的 研究에 있는 것이 아니라 政治組織의 根幹이 되는 一貫性있고 論理的으로 妥當한 法體系를 確立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政治組織의 研究를 위해서는 論理的 思考를 發展시키는 것이 先行條件이 된다. 論理的 思考는 經驗內容을 넘어서 知識을 얻는 過程이다. 따라서 超越의이고 抽象的이며 感性的 質量을 넘어서 理性的 展開의 過程이다. 이같은 論理的 思考에 의하여 法體系의 前提가 되는 純粹眞理命題를 判斷하고 그에서 演繹하여 法體系를 成立시키는 것이 學問의 努力이다. 이때의 純粹眞理命題는 國家理念이며 이데올로기이다.

政治學이 法과 國家의 制度를 確立시키고 政治組織에 관한 學問的인 根據를 論理的으로 妥當하게 提示함에 따라 政治學의 組織理論이 모든 其外의 社會組織의 基本原理로 援用되고 또 實際로 適用되었다. 그 端的인 例를 우리는 카톨릭의 宗教組織에서 發見할 수 있다. 카톨릭의 組織은 外見上으로는 政治組織과 區別되기 어려운 組織體制를 갖춘 宗教組織이다. 뿐만아니라 産業革命以後에 發達한 古典的인 資本主義의 産業組織도 그 組織的 特性에서는 政治組織을 모델로하여 發展하였다.

社會組織에 관한 研究가 政治組織에 集中되었다는 事實은 學問의 發達過程에서 必然的인 歸結이라 할 수 있지만 그 結果를 社會組織에 一般化하는 데는 몇가지 問題가 있다. 첫째로 政治組織은 여러 社會組織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는 點을 強調할 必要가 있다. 人間은 社會生活을 하므로서 여러 種類의 社會組織을 形成 發展시켰다. 政治組織 以外에도 宗教組織, 軍事組織, 生産組織, 商業組織, 金融組織, 教育組織, 交通運輸組織, 娛樂趣味組織 等の 이루어야 할 수 없는 多彩로운 組織을 成立시켰다. 人間社會에 사는 어떤 個人이든 이들 社會組織에서 벗어나 社會生活을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들 各己의 社會組織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社會的 現實을 지니고 있으며 獨特한 屬性을 갖는다. 그러므로 政治組織이 갖는 現實(reality)이 宗教組織이나 産業組織의 그것과 同一하거나 同一해야 할 理由는 없다. 따라서 政治組織에 관한 學問的 研究結果가 곧바로 餘他의 社會組織에 一律的으로 適用될 수는 없다. 그러나 現實的으로는 政治組織에 관한 學問的 研究가 先行되었으므로 다른 社會組織에서 그 結果를 援用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結果는 지나친 一般化가 가져오는 缺陷을 免할 길이 없어 個別社會組織이 갖는 特性을 浮刻시키지 못한다. 따라서 政治組織에만 限定되지 않는 汎社會組織에 관한 組織的 次元의 研究가 要望되지 않을 수 없다.

政治組織에 관한 知識을 一般化하여 他社會組織에 適用하기 어려운 둘째 理由는 組織의 目的과 手段과의 關係에서의 差異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社會組織이든 그것이 形成되려면 目的이 있어야 하며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手段으로서의 組織의 內容이 있어야 한다. 政治組織의 目的은 理想的인 國家를 建立하는 것이고 그 手段은 現實的인 政治組織의 組織內容이다. 宗教組織이나 產業組織도 그 目的과 手段으로서의 組織內容을 갖추고 있다. 形式的으로 目的과 手段이란 次元에서 보면 모든 社會組織이 共通的인 特性和 內容을 갖는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目的이 서로 다른 社會組織들은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組織內容에서 서로 差異가 있으리라는 것도 事實이다. 現實的으로 政治組織이라는 같은 종류의 社會組織에 관해서도 國家目的 또는 國家的 이데올로기에 관한 見解差異에 따라 國家組織 즉 政治組織의 內容과 特性이 달라지고 있다. 個人的 自由와 人權을 最大限으로 可及的 尊重하는 民主主義的 政治組織에서 부터 一人獨裁의 專制王國의 政治組織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數 많은 階級的의 差異가 있는 政治組織들이 現存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이같이 같은 政治組織의 範疇에 屬하는 社會組織마저도 組織內容이 달라질 수 있는데 하물며 서로 目的이 다른 社會組織들 사이에는 組織次元에서 差別이 없을 수 없다. 宗教組織, 產業組織, 軍事組織 또는 그 밖의 여러 社會組織들도 各己의 固有한 目的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한 獨特한 組織的 特性을 갖게 된다. 그러므로 政治組織에 관한 研究結果를 모든 다른 社會組織에 一律的으로 一般化 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從前에 있었던 政治組織에 관한 研究는 주로 法體系가 갖는 論理的 妥當性和 一貫性을 探索하는 方法論에 依存하였다. 그러므로 이같은 研究結果는 政治組織自體에 있어서도 그 現實的인 組織實體에 適用하기 困難한 理論을 創出하게 된다. 즉 理論과 實際의 사이의 乖離가 있을 수 있다. 이같은 事情에서 보면 政治組織에 관한 研究들이 바로 政治組織 以外的 組織에 適用되거나 그에 의하여 說明될 것을 期待하는 것은 無理일 것이다. 論理的으로 妥當한 推論에 依하여 얻는 어떤 理論도 二律背反的인 反對理論을 隨伴하게 됨을 Kant는 指摘하고 있다. 따라서 社會組織에 관한 研究方法이 보다 實證的인 것이어야 하며 論理的 一貫性보다 社會組織의 現實的 實體를 客觀的이고 經驗的으로 探求하여 妥當한 知識을 發見하여야 한다는 學問的 要請이 없을 수 없다.

政治組織을 中心으로 하는 社會組織에 관한 研究를 他 社會組織에 一般化하려면 克服해야 할 難點들이 隨伴하였으므로 社會組織에 관한 研究가 政治組織에 관한 研究를 脫皮해야 한다는 생각이 擡頭되기 始作했다. 이같은 學問的 傾向은 18世紀 後半에서 부터 胎動하기 시작하여 19世紀初에 그 모습을 갖추

게 되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 社會組織에 관한 研究가 發展된 두개의 커다란 潮流를 찾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주로 獨逸에서 發達한 傾向으로서 個別社會科學이 各己 自己 領域에 屬하는 社會組織을 研究하는 學問的 方向이다. 人口學( *Bevölkerungslehre* ), 經濟學( *Wirtschaftslehre* ), 法學( *Rechtswissenschaft* ) 등의 社會科學의 個別學問領域이 政治學( *Staatswissenschaft* ) 以外에 그들이 對象으로 하는 社會組織들의 特性을 實證的으로 研究하기 始作하였다. 이와는 달리 프랑스 學界에서는 社會科學의 어떤 個別領域에 屬하는 社會組織에 대해서 보다는 社會組織一般에 관한 實證的 研究에 關心이 있었다. 그리하여 Auguste Comte 가 새로운 學問領域으로 社會學을 創設하였다. 그러나 Wundt 는 Comte 의 社會學을 歷史哲學의 새로운 轉機를 마련한 것이었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diese neue Geschichtsphilosophie eine eigentümliche, von den bisberigen philosophischen Behandlungen der Geschichte wesentlich abweichende Richtung einschlagen hat, da sie nicht in der Entstehung der geistigen Werte der Kultur, sondern in der Steigerung der materiellen Kulturgüter... das Ziel der Gschichte erblickt, in diesen Sinne demnach als die eigentümliche Form einen materialistischen Geschichtsphilosophie, wenn wir hier das Wort Materialismus in einen etwas weiterem als dem gewöhnlichen Sinne verstehen, betrachtet werden kann( Wundt, 1916, p.6).

이 引用文에서 보면 Wundt 는 Comte 의 社會學이 새로운 歷史哲學의 展開이며 또 從前의 歷史哲學이 人類의 文化的 價値의 變遷過程을 探索하는 理論體系였는데 반하여, 새로운 歷史哲學으로서의 社會學은 物質的 文化素材의 變遷을 說明하려는 歷史哲學으로 把握된다고 하였다. 이는 Comte 의 社會學이 갖는 實證主義는 方法論的인 意味보다는 對象이 具體的인 物質的인 基盤을 갖는 새로운 歷史哲學이라는 點을 強調한 것이며, 方法論的으로는 아직 經驗的이라기 보다는 論理的이라는 것을 意味한다. 따라서 Comte 는 그의 意圖에도 不拘하고 社會組織一般을 經驗的 實證的으로 研究하는 社會學을 發展시키지 못했었다.

社會組織에 관한 學問的 研究를 社會學에서 具體化하기 위해서는 Comte 의 時代를 지나 19世紀 後半까지 學問的 成熟이 이루어 져어야 했다.

## 組 織 理 論

社會組織自體內的 變數를 實證的으로 究明하므로써 本格的인 組織理論을 發展시키기 까지에는 Comte 以後 社會學에 많은 發展이 先行되었어야 했다. 組織理論을 처음 學問的인 軌道위에 定着시킨 사람은 Max Weber 였지만 그 以前의 社會學者들이 이미 社會組織에 관한 問題를 思索했었다. 이들 중 注目

할만한 理論들은 英國의 社會學者 Herbert Spencer, 獨逸의 社會學者 A. E. Schaffle 및 프랑스의 社會學者 E. Durkheim을 들 수 있다.

Spencer의 思想은 自然哲學의 見解를(Naturphilosophischer Gesichtspunkte) 代表한다. 그에 의하면 自然界나 人間社會나 모두 自然法則에서 벗어날 수 없다. 즉 分化(Differentiation)와 統合(Integration)이란 相反되는 作用이 서로 交替하는 周期을 이루며 變遷하고 發達해가는 것이 自然法則이다. 이 法則은 宇宙의 運行에서 부터 人類社會의 組織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現象들을 支配한다. 따라서 社會組織도 그 어떤것이든 自然法則의 循環에 따라 組織의 內容이 決定된다고 解釋한다. Spencer의 이같은 立場은 事物을 보는 自然科學의인 立場을 社會組織에 援用한 것이라 解釋된다.

Spencer와는 달리 社會組織을 보다 實證的으로 理解하려는 見解는 社會組織과 有機體를 對比시켜 類推하는 立場에서 찾아 볼 수 있다. 類推論의 代表者로서 손꼽을 수 있는 사람이 19世紀에서는 A. E. Schaffle이었다. 原來 有機體와 社會組織을 類推하는 思想은 Plato에서 부터 始作하여 浪漫主義時代의 Neoplatonism에서 復活되었다. 그러나 Schaffle의 類推는 生物學의 解剖學 또는 形態學的 知識의 發達에 따른 類推였으므로 보다 더 科學的인 嚴密性을 지닌 것이었다. 그러나 그의 生物學的 類推도 社會組織과 生物體를 機能的 次元에서 類推하는데는 이르지 못하였다. 社會組織의 機能的 側面에 관한 Schaffle의 見解는 Tarde나 LeBon의 群衆心理의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 自身도 이들 群衆心理學이 社會組織의 機能을 說明하는데는 不充分함을 認識했으며 이를 補完하기 위한 學問的 作業은 앞으로 發達할 것으로 豫測되는 社會心理學에 期待한다는 見解를 表明하였다.

社會組織을 自然法則에서 解明하려는 自然哲學的 立場이나 生物體와의 類推에 의하여 把握하려는 見解들은 모두 社會組織을 組織外的 變數에 의하여 說明하려는 立場이다. 따라서 組織自體內的 變數들을 根據로 하여 社會組織을 理解하는 立場이 아니므로 組織自體의 實證的인 研究라 할 수 없다. 그리하여 經濟學의 分野에서 Durkheim은 社會組織을 作業의 分業法則에 立脚하여 說明하려 하였다. 그의 見解에 따르면 社會組織이란 組織目的을 達成하기 위해 分擔되는 分業의 總體로서 理解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組織은 構成員인 個人을 넘어서 實體로서 存在하며 社會組織의 機能을 決定하는 法則은 Spencer에서와 같은 自然法則이 아니라 集團意志의 法則이라 했다. 集團意志는 組織을 構成하는 個人의 意志의 加算的인 總合이 아니므로 社會組織을 理解하기 위해서는 그 組織의 集團意志를 찾아야 하며 이 集團意志를 研究하는 學問이 社會學이라 規定했다.

위와 같이 社會學의 여러 碩學들이 그들의 理論的 圖式에 따라 社會組織을

探索하려는 努力을 多樣하게 試圖하였지만 本格的인 組織理論은 Max Weber의 官僚制에 관한 研究에서 그 始初를 찾는다. 따라서 Weber의 組織理論을 古典的인 理論의 代表的인 것으로 꼽는다.

(1) Max Weber의 支配類型(Die Typen der Herrschaft)과 官僚制(Bureaukrat)

Max Weber는 社會組織을 支配關係에서 規定하였다. 社會組織이 形成되려면 그 어떤 것이든 支配關係가 存在해야 한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는 支配關係를 다음과 같이 定義했다.

“Herrschaft” soll, definitionsgemäß, die Chance heißen, für spezifische Befehle bei einer angebbaren gruppe von Meuschen Gehorsam zu finden (Weber, Wirtschaft und gesellschaft, Kapitel III).

이 定義에 의하면 支配關係란 命令과 服從의 關係이며 이는 모든 社會組織의 根幹인 것이다. Weber는 支配類型을 政治組織에만 限定하려 하지는 않았지만 實際的인 研究에서는 政治的 統治組織을 資料로 하여 支配類型의 內容을 說明하였다. 이는 Weber의 時代에 있어서 政治組織이 가장 많이 研究된 優位的인 社會組織이었으며 또 政治組織 以外의 組織들은 그 組織의 屬性을 政治組織에서 援用하였다는 事實에 起因한다고 解釋된다. 그리하여 Weber는 支配類型을 1) 官僚制에 의한 合法的 支配, 2) 傳統的 支配 3) 카리스마의 支配의 三大類型으로 分類하고 既存했던 統治組織을 分析하므로써 各 支配類型의 屬性을 規定하였다. 이들 支配類型에서 傳統的 支配와 카리스마의 支配는 社會組織의 組織學的 次元이나 變數를 문제 삼았다기 보다는 既存했던 統治手段의 種類를 區分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두 支配類型은 社會組織의 本質의 實體를 解明한 것이라 看做되지 못한다. 그러나 官僚制에 의한 合法的 支配의 類型은 政治組織 乃至는 社會組織一般의 組織學的 問題를 提供한다. 즉 現代社會組織은 어차피 官僚制에 의한 支配의 形態를 취하게 되며 따라서 官僚制의 屬性이나 變數를 究明하는 것이 組織學的 學問的 本領이기 때문이다. Weber는 官僚制에 의한 合法的 支配의 根據가 되는 思想을 여러 條項을 들어 說明하였는데 그 중 제 5항의 규정인 組織理論的 側面에서 가장 重要하다.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 die Vorstellung, daß die Verbandsgenossen, indem sie dem Herrn gehorchen, nicht seiner Person, sondern jenen unpersonlichen Ordnungen gehorchen und daher zum Gehorsam nur innerhalb der ihm durch diese zugewiesenen rational abgegrenzten sachlichen Zuständigkeit verpflichtet sind (Max Weber, op. cit.).

즉 官僚制란 上官의 命令에 服從하기는 하지만 그 上官個人에 服從하는것이



아니라 個人的 側面을 排除한 法規에 服從하는 支配關係라는 것이다. 이같이 人間關係의 支配服從關係가 아니라 地位의 高下를 莫論하고 法規에 服從하는 關係가 社會組織의 本質이란 見解가 Weber 에 의하여 비로소 明確하게 되었다. 따라서 組織理論은 처음으로 法規에 의한 合法的인 支配關係를 確立하는 理論으로 浮刻되었다.

官僚制(Bureaukratie)라는 用語는 Weber 以前에 벌써 있었으며 주로 行政의 非能率을 指摘하는 否定的인 意味로 使用되는 것이 通例였다. 그후 이 用語의 概念들이 學問的인 檢討의 對象이 되어 論者에 따라 多樣하게 解釋되었다. Albrow (1972)는 Bureaukratie 라는 概念에 대한 7個의 各各 다른 見解들을 紹介하고 있다. 첫째로는 合理的 組織을 Bureaukratie 로 보려는 立場이다. 둘째는 組織의 非能率을 指摘하는 解釋이다. 셋째로는 官吏들에 의한 支配라는 意味를 갖는다. 넷째로는 公共行政을 指摘한다. 다섯째로는 官吏爲主의 行政을 말한다. 여섯째로서는 社會組織自體를 뜻한다. 일곱째로서는 現代社會自體를 Bureaukratie 로 解釋하는 見解이다.\* 이같은 多樣한 見解에서 Max Weber 는 科學徒로서의 立場을 固守하여 이 用語가 갖는 否定的 意味를 止揚하고 脫價值的으로 받아들여 合理的 社會組織을 官僚制라 定義했던 것이다. Peter Leonards(1966)가 부연한 Bureaukratie 의 定義에 의하면 “官僚制란 단순히 組織目標를 達成하기위해 취해야할 合理的이고 明確한 行動規定이라 理解”된다고 했다. 따라서 Weber 의 思想에서 보면 官僚制란 行動規定의 綜合을 뜻하며 個人的 集合體로 理解되지 않는다. 組織을 構成하는 各個人들은 다만 그들에게 주어진 行動規定(Anordnung von Tätigkeiten)을 遂行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 社會組織이다.

社會組織을 合理的 官僚制로 理解하려는 立場을 組織에 관한 閉鎖體系接近(closed system approach)이라 한다. 이는 組織의 모든 屬性을 組織外의 條件과는 關係없이 組織內의 變數에 의하여 說明하려는 接近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接近에서는 組織의 目的과 手段과의 關係가 一義的으로 그리고 合理的으로 定義될 수 있음을 前提로 한다. 그러나 人間社會에 있는 社會組織이 그렇게 合理的일 수만 없으며 또 行動規定을 遂行하는 人間自體의 存在가 合理的인 것일 수 만은 없다. 뿐만아니라 社會組織이 合理性을 지나치게 強調하면 組織

- 
- \* 1. Die rationale Organization als Bürokratie
  - 2. Die Unfähigkeit einer Organization als Bürokratie
  - 3. Bürokratie in Sinne von Beamtenherrschaft
  - 4. Die Bürokratie in Sinne von öffentlicher Verwaltung
  - 5. Bürokratie in Sinne von Verwaltung durch Beamte
  - 6. Die Organization als Bürokratie
  - 7. Die moderne Gesellschaft als Bürokratie

의 機能이 경색해지게 마련이며 法規에 얽매어 오히려 逆機能의 結果를 招來할 수 있다. 따라서 社會組織을 單純히 合理的 官僚制의 閉鎖體系로 理解하려는 試圖은 社會組織의 本質을 把握할 수 없다는 反論이 擡頭되었다.

## (2) 開放體系로서의 社會組織

Max Weber의 古典的 組織理論이 지니는 閉鎖體系的 接近의 短點을 止揚하기 위한 理論으로서 開放體系理論이 提起되었다. 그러나 社會組織을 開放體系로 接近하는 理論이 成熟되기 까지는 많은 社會理論의 發展이 先行해야 했다. Katz와 Kahn(1966)\*은 이같은 先行研究를 (1) Marx 理論, (2) Parsons와 構造的 機能主義, (3) Allport의 事象構造理論 및 (4) 一般體系接近의 4個임을 指摘하고 있다. 이중 Marx 理論은 社會組織을 葛藤形成과 그의 解消라는 側面에서 接近했고 Parsons는 Weber의 官僚制組織理論을 土臺로 社會組織의 構造的 要素들을 機能의 分化和 關連지어 分析하였다. Allport(1962)는 心理學者였으므로 社會組織을 組織構成員의 週期的 行動의 集合으로 理解하려고 했다. 즉 組織內에서의 個人的 行動은 同一樣式의 反復週기를 갖는 行動이며 社會組織內에 나타나는 事象들은 이같은 反復行動의 어떤 斷面に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社會組織을 理解하려면 組織內의 事象을 形成하는 個人들의 反復週期的 行動의 本質을 把握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社會組織의 特性을 探索하려는 여러 接近이 試圖되었으나 社會組織을 開放體系로 理解하려는 努力에 直接的인 理論의 根據를 提供한 理論은 一般體系理論의 接近이다. 一般體系理論은 Von Bertalanffy(1968)에 의하여 1945년에 提唱된 理論으로서 生物體의 細胞에서 부터 社會에 이르기 까지의 여러 水準에 共通된 原理와 接近方法을 模索하는 理論이다. 이 一般體系理論이 社會組織을 理解하는 接近方法으로 脚光을 받게된것은 Boulding(1956)의 貢獻에 힘입음이 크다. 그는 學問分類에 두가지 接近方法이 있음을 指摘하였다. 그 하나는 各 個別學問領域에서 共通된 特徵을 찾으므로써 모든 分野에 適用될 수 있는 基本原理를 抽出하는 方法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서로 隣接하는 個別學問分野의 共通點을 찾고 그 두 分野에서 더 發展된 對象을 決定하고 다음 또 다른 分野와 그 分野를 比較하므로써 學問領域을 位階的으로 分類하는 努力이다. Boulding은 이 後者의 方向을 取하여 다음과 같은 9個 位階로 體系를 區別하였다.

- 
- \* (1) Marxian theory
  - (2) Parsons and the structural-functionalists
  - (3) Allportian event-structure theory
  - (4) The general system approach

- 第1水準 骨骼構造(Frameworks)
- 第2水準 機械的構造(Clockworks)
- 第3水準 統制的體系(Control Systems)
- 第4水準 開放體系(Open Systems)
- 第5水準 發生的成長體系(Blueprinted Growth Systems)
- 第6水準 內的心像體系(Internal Image Systems)
- 第7水準 象徵處理體系(Symbol Processing Systems)
- 第8水準 社會構造體系(Multi-Cephalous Systems)
- 第9水準 複合體系(Systems of Unspecified Complex)

이같이 各 個別學問이 研究對象으로 하는 體系의 複雜性이 增加함에 따라 各 體系를 說明하는 理論들의 內容도 더욱 精巧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社會組織을 閉鎖體系로 接近하는 理論은 第1 또는 第2 水準인 骨骼構造나 機械的構造로 社會組織을 說明하는 體系理論이다. 이에 反하여 社會組織을 開放體系로 理解하려는 接近은 組織을 制御的體系나 開放體系로 看做한다. 이같은 體系理論에서는 社會組織이 固定된 法規의 綜合體가 아니며 또 論理的으로 合理的인 體系도 아니다. 社會組織은 環境과 分離된 閉鎖體系도 아니다. 따라서 社會組織의 內的條件들은 恒常 外的環境에 따라 變할 수 있는것으로 把握하며 또 外的環境이 一定할것을 前提로 하지도 않는다. 그리하여 開放體系로서의 社會組織은 入力(input), 通力(throughput), 出力(output)의 過程을 通하여 素材(material)나 情報(information)가 處理되어가는 體系이다. 따라서 이 體系에서 生産되는 出力은 組織을 둘러싼 環境에 影響을 주며 그 結果는 또다시 入力の 形態로 組織속에 傳達된다. 이같은 情報를 歸還 情報(feedback information)라 한다.

社會組織을 開放體系로 接近하는 것은 Weber의 官僚制를 비롯한 閉鎖體系가 갖는 逆機能的인 側面은 止揚하고 또 社會組織을 力動的인 것으로 把握한다는 長點을 갖고 있다. 그러나 Hall(1972)이 指摘한 바와 같이 社會組織이 完全히 開放體系로만 取扱되어 진다면 이는 組織이 環境의인 影響에만 依存하고 組織內的 要素들이 存在해야 하는 合理的인 根據가 없어진다. 즉 어떤 組織要素가 組織內에 있어야 하는가 하는것은 組織自體內的 條件에 의하여 決定되는 것이 아니라 環境에서 들어오는 入力の 屬性에 따라 全적으로 決定된다고 할 수 있다. 이같은 解釋에서는 社會組織의 組織的 屬性이 蒸發해 버리며 組織存立根據가 없어지고 만다. 따라서 識者들 사이에는 閉鎖體系로서의 社會組織과 開放體系로서의 社會組織을 調和시키는 理論을 發見하기 위한 努力이 擡頭되었다.

### (3) 組織文化的 接近

社會組織에 대한 開放體系的 接近에 反論을 提起하여 가장 注目을 받고 있는 理論이 組織文化的 接近理論이다. 이 理論은 Pondy와 Mitroff(1979)에 의하여 提唱되었지만 그에 앞서 Thompson(1967)이 開放體系的인 接近의 立場에서 閉鎖體系的 屬性인 組織의 合理性 또는 制限된 合理性(bounded rationality)를 調和시키려는 努力을 하였다. 따라서 Pondy 등의 論議는 Thompson의 主張을 批判하는데서 出發하였다. 앞에 言及한 Boulding의 組織複雜性的 位階理論에서는 Thompson의 理論을 第4水準 以下の 複雜性を 갖는 組織에 관한 體系理論이라고 批判하였다. 이같은 開放體系로 社會組織을 理解하는 立場은 言語를 갖고 自意識과 象徵過程을 갖는 人間들의 集合體로 組織을 理解하는 것이 아니라 自動制御裝置를 갖춘 말하자면 로보트들의 構成體로 組織을 理解하는 次元에 머무르게 된다. 그러므로 Pondy 등은 社會組織을 單純한 開放體系로 接近할 것이 아니며 그를 넘어서는 體系로 理解할 必要가 있음을 強調한다. 組織은 單純한 그 構成員과 그들의 行動을 規定하는 미리 處方된 法規의 集合이 아니다. 組織의 本質은 이같이 表面에 나타나고 따라서 觀察될 수 있는 事實들을 可能하게하는 根本秩序(order 또는 orderliness)이다. 이 秩序는 반드시 論理的으로 思考되어진 結果로 얻어지는 것일 必要가 없다. 오히려 組織內的 個人들의 行動을 存在하게 하는 背後에 숨어 있는 秩序라고 할 수 있다. Pondy 등은 이 秩序를 比喩的으로 Chomsky의 言語理論에서 類推한다. 즉 社會組織의 表面에 나타난 事實들은 言語의 表面構造(surface structure)와 같고 組織의 本質的인 秩序는 深層構造(deep structure)와 견주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組織의 本質을 把握하기 위해서는 組織의 深層構造를 探索해야 한다. 그리고 組織이 物理的 組織이 아니라 社會組織일 경우에는 深層構造가 곧 그 組織의 組織文化이다. 이는 한 社會의 社會的 特徵을 그 社會가 갖는 文化를 根據로 하여 說明하려는 人類學的 接近軌를 함께 하는 것이다. 이같이 社會組織의 深層構造인 組織文化가 組織研究의 對象이 됨으로써 社會組織理論은 Pondy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組織의 概念的 定義가 달라지고 있다.

Conceptually, the status of an organization shifts from that of an objective reality to one which is a socially constructed reality.

이 引用에서 보는바와 같이 組織의 實體는 觀察되어지는 客觀的 事實이 아니라 現象의 次元에서 構造—意識되어지는 次元에서의 構成이 아니라 意識되어지기 以前의 意識內 構造—된 實體로 看做되고 있는 것이다.

社會組織의 研究가 現象的인 接近으로 方向이 轉換되고 그 結果 社會組織의 深層構造로서의 組織文化를 探索하게 됨에 따라 文化一般에 관한 人類學的 理

論과 그 接近方法이 社會組織의 研究方向과 對照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Smirich (1983)는 人類學에서의 “文化”의 概念과 組織理論에서의 “組織”의 概念을 서로의 類似性에 根據하여 다음과 같이 對比시키고 있다. 즉 Malinowski의 機能主義的 文化理論은 古典的 管理理論과 通하며 Radcliffe Brown의 構造的 機能主義는 組織理論의 狀況理論(contingency theory)와 比較되고 Goodenough의 ethnoscience와 認知的組織理論이 共通된 立場을 取하고 있으며 Geertz의 象徵人類學(symbolic anthropology)와 組織學의 象徵的組織理論이 類似한 接近이며 Levi-Straus의 構造主義와 轉形組織理論(transformational organization)의 見解가 一致함을 類推하였다. Smirich의 概況을 보면 人類學에서 文化에 관한 理論이 漸次로 現象的인 次元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組織理論도 表面構造에서 부터 組織의 深層構造로 深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政治組織의 경우를 說明한다면 法的으로 三權이 分立되어 表面構造로서의 行政, 司法, 立法機關이 獨立되어 있더라도 國民의 政治文化라는 深層構造에서 이런 分化가 明確하지 못하다면 그런 狀況에서의 政治組織에 관한 明確한 理解에 到達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制度的으로 三權이 分立되었다는 事實보다는 國民들의 政治文化를 把握하려는 努力이 政治組織에 관한 研究의 目的이라 할 수 있다. 組織文化的인 接近方法이 巨視(macro)組織理論의 現狀이며 將次 이 理論이 어떻게 發展할 것인가 하는 것이 많은 期待를 모으고 있다.

#### (4) 組織理論의 要略

以上에서 論述한 組織理論들은 所謂 巨視的 立場에서의 理論이다. 따라서 理論을 뒷받침하는 分析單位가 組織全體이며 組織을 構成하는 個人이 아니다. 이같은 立場에서는 組織內的 個人의 行動은 社會組織의 全體的인 脈絡에 依하여 決定되는 것으로 理解한다. 그리하여 Max Weber의 官僚制와 같은 閉鎖的 理論에서는 個人은 組織의 機能을 分擔 遂行하는 道具에 지나지 않는다. 또 開放理論에서도 閉鎖體系와 같이 미리 規定된 行動規定은 없지만 個人은 組織全體가 外部環境에서 오는 여러 影響을 받아들이고 處理하여 結果를 얻는 所謂 組織의 入力(input), 通力(throughput) 및 出力(output)의 역할을 擔當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또 組織文化에 관한 理論이 發達하게 된 것도 組織內的 個人을 分析한 結果에서가 아니라 社會組織에 관한 開放體系接近이 社會組織의 客觀的 實體의 次元에 머물러 있으므로 해서 組織의 深層的인 實體를 把握하지 못하는 缺단을 是正하려 한 結果였다. 이같은 立場 즉 巨視的인 組織理論에서는 組織內的 個人은 道具로서의 役割以上の 것으로 理解되기 어렵다. 따라서 組織理論은 일찍부터 發達했지만 組織心理學의 理論이

發達한것은 極히 最近이다.

### 組織心理學理論

以上에서 言及된 組織理論은 社會組織의 構成員인 個人의 心理나 行動을 考慮에 넣지 않은 것은 아니나 理論의 分析單位를 個人 보다는 組織全體에 든 組織理論들이다. 따라서 組織研究에서 흔히 分類하는 바와 같이 社會組織에 관한 巨視的研究이며 心理學의 領域에 屬하는 理論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社會組織에 관한 社會學 또는 政治學에 屬하는 分野이다. 그러나 모든 學問의 發達이 그러하듯이 처음에는 큰덩어리를 分析單位로하여 研究가 시작되지만 차차 보다 細分된 分析單位로 옮겨가는 것이 社會組織에 관한 研究에도 例外가 될 수 없다. 그리하여 組織研究의 일각에서는 組織全體로서가 아니라 組織內의 個人을 分析單位로 하는 組織研究를 推進하려는 努力이 擡頭되었다. 이를 社會組織에 관한 微視的(micro)接近이라 한다. 社會組織에 관한 微視的接近 에서는 組織內의 個人의 行動이나 그 行動을 可能하게하는 諸般心理的 要因들이 研究의 主된 對象이 되므로 組織研究가 마침내 心理學研究와의 만남이 이 루어지게 된다.

現代心理學을 Wundt가 創設한 것은 社會的脈絡속에서의 個人의 心理를 探 求하려는데서 出發한것은 아니었다. 個人의 意識속에 주어지는 直接經驗에서 나타난 事實들을 研究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嚴格한 個人心理의 研究는 人間關係의 心理的 特徵을 說明할 수 없다는 事實을 Wundt 自身도 잘 알고 있 었다. 그리하여 1900년에 그가 民族心理學(Völkerpsychologie)를 執筆하기 始作한것도 個人心理學(Individualpsychologie)의 未備를 補完하기 위해서 였다. 그는 民族心理學 第1卷 言語의 序章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있다.

Sie (Individualpsychologie) verzichtet durchgängig auf eine Analyse jener Erscheinungen, die aus der geistigen Wechselwirkung einer Vielheit Von Einzelnen entspringen. ...Demnach besteht die Aufgabe dieses Teilgebiets der Psychologie(Völkerpsychologie) in der Untersuchung derjenigen psychischen Vorgänge, die ... der Entstehung gemeinsamer geistiger Erzeugnisse von all-gemeingültigen Werte zugrunde liegen...

Als nächster kreis umschließt ihm (den Einzelne) die Familie ...steht er inmitten noch anderer, manigfach sich durchkreuzender Verbände ..... (Wundt, 1900, p.1-2).

Wundt가 民族心理學 執筆을 考慮하게된 19世紀末의 西歐學風의 傳統은 主 로 政治的 統治制度의 分析에 力點을 두고 있었다. 아직 現代社會와 같이 產 業組織이 發達하지 못했으므로 政治組織에 관한 研究가 社會組織研究의 主流

를 이룬것은 首肯할만 하다. 뿐만아니라 그 當時 西歐社會의 知性이 地表의 全體에 擴散하여 여러 原始社會에 관한 人類學 및 民俗學의 報告와 資料들이 洪水를 이루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들 資料를 分類하고 整理하며 또 說明할 수 있는 基本原理를 探索해야 할 必要가 생겼다. 여기에서 Wundt 는 各民族 (Volk)을 單位的인 社會組織으로 看做하고 이들 民族속에서 일어나는 現象들을 그 構成員인 個人들의 人間關係에 관한 心理現象의 表現으로 分析하였다. 그리하여 民族이란 社會組織의 形成과 그 發達을 決定하는 人間의 心理的原理를 集約하려는 努力의 結果가 그의 民族心理學을 執筆케했다. 生體의 器官을 研究對象으로 하는 生理學이 아무리 發達하더라도 說明할 수 없는 人間의 屬性으로서의 意識의 實體의 存在를 認定하여 意識研究라는 새로운 分野로서의 心理學을 創立한 Wundt 는 民族이란 社會組織들을 支配하고 있는 心理現象을 研究하는 民族心理學을 開拓하기에 이르렀다. Wundt 自身도 民族心理學이란 用語보다는 社會心理學( Sozialpsychologie)가 더 適合하다는 생각도 있을 수 있음을 指摘하고 있다. 그러나 그 當時만해도 社會心理學은 社會學의 隸屬學問으로서 社會現象을 說明할 수 있는 心理的特性을 研究對象으로 한다는 생각이 支配的이었다. 따라서 Wundt 는 社會心理學이란 用語를 避하고 있다. 그의 民族心理學이 그가 意圖한 바를 反映했으며 또 成功을 거두었는지에 관한 評價는 論外로 하더라도 적어도 組織心理學의 思想的 起點을 提供했음을 否定할 수 없다.

Wundt 以後 心理學은 主로 個人心理學研究에 置重했지만 1920年代를 접어들면서 社會心理學이 社會學의 隸屬에서 벗어나 心理學의 重要領域으로서의 位置를 確保하므로써 集團心理(mass psychologie)의 研究를 벗어나 集團속의 個人 또는 個人과 個人과의 相互關係 즉 社會的刺戟에 대한 心理的反應에 관한 實驗的이고 實證的인 研究가 活潑하게 展開되었다. 그러나 이같은 實驗 社會心理學은 社會組織의 脈絡을 特別히 假定하지 않고 一般心理學이 物理的刺戟에 대한 心理的反應을 研究하듯이 社會的刺戟에 대한 心理作用을 分析하였다. 따라서 Katz 와 Kahn (1978)은 그의 1966年版에서 이미 第2의 社會心理學이 必要함을 다음과 같이 力說하고 있다.

The usual textbook in social psychology consists of three parts—a consideration of individual cognitive processes, ...; an account of personality development and socialization; and a treatment of interpersonal and intra-group processes.

This type of book, in our opinion, leaves off where the most important problems of social psychology begin. A second volume is necessary to move beyond the introduction to the field and to deal with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social structures.

Psychologists halt their study... because they lack conceptual tools for venturing into more complex area (Katz & Kahn, 1970, p.2).

Katz와 Kahn은 보다 複雜한 社會的構造를 갖는 社會組織에 관한 心理學的研究에 必須的인 概念的 道具로서 開放體系理論을 導入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試圖은 지나치게 組織行動을 體系的 概念的 型態속에 맞출려는 傾向이었으므로 오히려 微視的 分析보다는 巨視的 接近에 近似하고 다만 끝章에서 組織內의 心理作用을 다룬데 지나지 않는다는 評은 받을만 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Kahn과 Katz의 努力에도 不拘하고 그들의 業績은 組織心理學의 立場이라기 보다는 古典的인 意味에서 社會學과 關連된 社會心理學的 接近이라 할 수 있다.

社會組織에 관한 心理學的研究의 正位置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으므로 組織心理學이란 用語가 처음 文獻에 나타나기 시작한것은 1960年代라고 한다. 勿論 이에 앞서 産業組織內에서의 個人心理에 관한 研究는 産業心理學이란 이름으로 1900年代 初期부터 活潑하게 展開되었다. 그러나 産業心理學의 基本立場은 組織이 構成員으로서의 個人과 關係없이 이미 存在하고 個人은 그 組織이 要求하는 能力과 才能을 提供하며 組織에 適應하는 心理過程을 研究하는데 重點을 두었다. 그러므로 産業心理學은 組織心理學 보다는 人間工學的인 側面이 強調되었을 뿐이었다. 그후 1960年代에 이르러 비로소 單純한 人間工學으로서의 産業心理學을 脫皮한 組織內에서의 心理學 즉 組織의 構成員으로서의 個人을 分析單位로하는 社會組織의 研究報告가 나타나기 始作했다.

心理學의 各分野에 걸친 業績을 每年 綜合하는 心理學年報(Annual Review of Psychology)\*에서 1964年 비로소 組織心理學이란 論題로 Leavitt와 Bass (1964)가 이 分野의 研究結果를 綜合報告하고 있다. 그들에 의하면 1960년부터 從前의 産業心理學의 範圍를 벗어나 組織構成員의 行動을 組織이란 脈絡속에서 理解하려는 새로운 心理學의 分野가 擡頭되고 있다는 事實을 示唆하는 論文들이 나타나기 始作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分野가 바로 組織心理學의 領域이 된다고 說明하고 있다. 勿論 어떤 새로운 學問分野가 形成되는 初期에는 單一한 既存學問의 成熟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關聯된 學問分野들의 貢獻에 依存하여야 한다. 組織心理學의 境遇에도 例外는 아니었다. 社會心理學, 社會學, 應用人類學, 認知心理學 또는 實驗心理學의 各分野의 既存知識이 組織心理學 形成에 貢獻한바가 크다.

Leavitt와 Bass는 組織心理學의 領域에 包含될 수 있는 研究內容으로서

\* Leavitt가 이에 앞서 1962年 Walter Van Dyke Bingham Lectures에서 "Toward Organizational Psychology"란 題目的 論文을 發表했지만 公式的인 心理學文獻으로서의 1964年의 論文이 組織心理學의 호시라 할 수 있다.



4 개 분야의 研究를 들고있다. 즉 (a) 決心過程(decision processes) (b) 對人關係(personal and interpersonal relations) (c) 組織構造와 設計(organizational structure and design) 및 (d) 技術革新(technology, 特別 computer)의 研究分野들이다. Pondy 등(前掲書, 1979)에 의하면 이 4 개分野에서 앞의 둘은 微視的(micro)組織分野이고 뒤의 두分野는 巨視的(macro) 接近分野이다. 그들은 이 두分野를 다음과 같이 區別하고 있다.

The field of organizational studies is commonly segmented into "micro" and "macro" branches, the former typically, but not universally, being labeled "organizational behavior," and the latter "organization theory." By whatever labels, the micro branch is ordinarily thought to comprise the study of individual, interpersonal and intergroup behavior as in the study of leadership, motivation, and job design, whereas the macro branch concerns organization-wide aspects such as structure, relations with the environment, effect of technology, and so forth(Pondy, 1979, p.4).

이같은 定義에서 보면 決定過程과 對人關係는 微視(micro)에 속하고 組織構造 技術革新은 巨視(macro)에 속한다 하겠다. 그리고 1970年代의 Porter, Lawler 및 Hackman(1975)의 教科書에서도 "巨視"는 組織을 分析單位로 하여 組織과 社會, 經濟 및 政治的 環境과의 關係에 關心을 두는 接近이고 微視는 個人과 組織內 集團이 "前景"(figure)이 되고 組織은 그 "背景"(ground) 또는 脈絡이 되는 接近이라고 定義하고 있다. 그러나 Leavitt과 Bass가 概觀한 1964年의 論文에서는 微視나 巨視의 區別없이 社會 組織內에서 일어나는 現象들을 組織構成員의 心理的 次元에서 考察하고 分析하는 모든 研究들이 組織心理學에 屬하는 것으로 取扱하였다.

Leavitt와 Bass가 1960年代 誕生初期의 組織心理學을 紹介했다면 Howell과 Dipboye(1982)의 教科書는 1976年에 初版이 나왔으므로 1970年代의 組織心理學을 代表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이 教科書의 名稱부터 異色的이다. 즉, "産業 및 組織心理學 要諦"라고 되어 있으며 産業心理學과 組織心理學을 한데 묶고 있다. 그 以前의 組織心理學은 組織에 관한 社會學的理論인 組織學 또는 組織理論과 組織行動을 함께 考察하여 統合하려 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社會心理學과 組織心理學을 連結시키려고 했다. 그러나 1970年代에 들어와서는 組織行動이 人間工學的인 産業心理學과 連結을 지으면서 社會心理學이나 巨視的 組織理論과 결별하고 새로운 心理學領域으로 獨自的인 位置를 차지하려했다고 解釋된다.

Howell과 Dipboye(1982, p.22)는 巨視的 接近으로서의 組織理論을 古典的理論, 新古典理論, 工學技術理論 및 現代體系理論으로 나누고 組織心理學의 背景理論으로 삼았다. 즉, 이 4개의 理論은 官僚制理論에서 부터 開放體系理

論에 이르는 現代組織理論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理論은 組織心理學의 脈絡的理論이며 組織心理學自體의 理論은 아니라고 看做되고 있다. 組織心理學의 研究領域을 Howell 등은 個人強調, 集團強調, 支導性強調의 3개 領域으로 區分했다. 그들의 分類는 다음과 같다.

#### 個人強調(動機, 職務滿足)

1) 動機理論(Motivation content theory), Maslow, Herzberg, MacGregor, McClelland 등의 研究를 中心으로한 組織內的 個人的 動機에 관한 研究

2) 認知理論(Cognitive process theory)

a) 公正(交換)理論(Equity(exchange) theory), Adams, Homans, Dunnette 등을 中心으로한 社會正義, 社會葛藤에 관한 研究

b) 目標設定理論(Goal-setting theory), Locke; Latham 및 Wexley 등을 中心으로 한 個人意圖에 관한 研究

c) 誘引期待理論(Valence-expectancy(VIE) theory), Vroom, Porter 와 Lawler 등의 結果에 대한 期待值의 主觀的極大化研究

#### 集團強調

社會過程모델(Social process models); Likert, Bales, Schein 등의 對人 交涉, 役割規定, 自生組織 등에 관한 研究

#### 支配性強調(管理役割)

1) 性格理論(Personality theory), Ghiselli의 管理者性格特性研究

2) 行動理論(Style or behavior theory), Tannenbaum과 Schmidt, Beer 그리고 Fleishman 등의 研究

3) 狀況理論(Situational theories); Fiedler, Vroom과 Yetton, 그리고 House 등의 研究

Howell 등이 列舉한 組織心理學의 研究內容과 앞의 Leavitt 등의 그것과를 比較하면 이 領域의 研究가 進一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Leavitt 등은 研究主題別로 研究內容을 紹介하고 있는데 反하여 Howell 등은 理論中心으로 論議를 展開하고 있다. 이는 組織心理學이 1960年代에는 記述的 研究의 範圍를 벗어나지 못했으나 1970年代中半에 이르러서는 벌써 組織內的 個人 또는 集團의 行動을 理論적으로 說明할 수 있을만치 研究內容이 蓄積되었음을 意味하는것이라 하겠다. 이같은 傾向은 1980年代에 들어와서는 더욱 뚜렷해진다. Pfeffer(1982)는 그의 最近著書에서 組織理論 및 組織心理學의 理論들이 너무나 많이 亂立하고 있으므로 이들 理論들을 分類하여 整理할 수 있는 概念的인 構造의 必要性을 強調하였다. 그는 原來 社會學者였으므로 組織心理學 보다는 組織에 관한 巨視的 接近에 보다 強調點을 둘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組織內的 個人行動을 分析單位로하는 個人指向의 研究를 이젠 組織理論에서 度外視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Pfeffer 는 모든 組織理論들을 두개의 關聯된 次元의 行列속에 定立시키려고 努力했다. 그 하나의 次元은 分析單位의 次元이고 또 다른 次元은 作用 (Action)을 解釋하는 見解의 次元이다. 앞의 次元에서는 組織全體를 分析對象으로하는 理論들과 個人을 分析對象으로 하는 理論들로 大別했다. 그리고 作用을 해석하는 見解의 次元에서는 作用이 內的合理性에 根據한다는 見解와 外的條件에 依해 統制된다는 見解와 그리고 現象的인 解釋을 하는 見解의 세가지 見解의 區別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이 두개 次元의 2×3 行列이 이루는 6개 分類 類目속에 모든 組織理論들을 各各 配置시킴으로써 그들의 理論의特性을 明白하게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는 약 22개의 組織理論 및 組織心理學理論을 이 類目들 속에 配置하였다. 그의 이같은 分類에서 分析의 單位에 관한 次元은 巨視와 微視의 從來의 區分과 差異가 없다. 그러나 作用을 解釋하는 見解들의 差異를 個人을 分析單位로 하는 境遇에 通用하는것은 어느 程度 合理性을 갖고 있다 하겠지만 組織全體를 分析單位로 하는 境遇에도 合當할것인지 分明치 않다고 하겠다. 왜냐하면 組織全體를 마치 個人的 行動을 說明하는 見解에 따라 解釋하려는 類推(Analogy)의 論理가 갖는 矛盾에 빠질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以上에서 組織心理學의 領域과 그 研究內容 및 理論發達の 過程에 관한 概觀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組織心理學의 立場에서 보면 組織은 客觀的이고 外的으로 觀察될 수 있는 對象들의 集合이라기 보다는 그 構成員들의 心理的 實存을 組織의 實體로 理解하는 것이 妥當하다는 立場을 갖는다. 그리고 끝으로 添言하고 싶은것은 組織心理學의 研究가 主로 産業組織에서 이루어졌다는 事實이다. 從前의 組織學의 理論은 主로 政治組織이나 宗教組織과 같은 公共의 利害를 調停하는 社會組織에 관한 理論으로서 發展하였다. 그러나 人間의 生存에 必要한 物資를 生産하는 産業組織은 그 나름대로의 特徵을 갖고 있어 政治組織을 支配하는 組織原理와는 다른 組織過程이 進行되는 것으로 解析된다. 따라서 社會組織에 대하여 巨視的接近을 하는 經濟學者나 經營學者들도 生産組織을 政治組織의 모델에서 說明하는 立場에서 脫皮하려 하였다. Williamson(1975)은 産業組織이 市場統制가 失敗되는데서 形成하게 되었다는 所謂 市場失敗(market failure)理論을 提示하였다. 즉, 모든 生産活動이 自由로운 市場去來에 의하여 進行된다면 去來經費(transaction cost)가 지나치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組織體를 構成하여 이 經費를 可及的 줄이려고 하는데서 生産組織이 成立되었다고 主張한다. 그리하여 生産組織體에서는 職務內容에 따라 모든 生産活動이 規制된다고 생각하였다. 즉, Weber의 官僚

제에 의한 統制를 가장 合理的이라 看做하였다. 그러나 人間的要素를 排除하는 官僚制가 政治組織에서는 合當한 役割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組織의 構成員이 協同하여 生産活動을 하여야 하는 生産組織에서는 所期の 成果를 나타낼 수 없음이 觀察되었다. 즉 가장 合理的으로 꾸며진 生産組織이 오히려 生産活動이 바람직한 水準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日本의 産業組織들이 歐美의 組織들 보다 生産性이 높다는 事實을 說明하기 위해 Ouchi (1981)는 Z理論을 發表하여 徒黨(clan)에 의한 支配가 보다 生産性を 높인다고 說明하고 있다. 즉, 絶對的인 服從과 絶對的인 保障의 相互責任에서 뭉쳐진 徒黨이 形成되어 生産活動을 하면 그 結果는 어떤 産業組織보다도 더 높은 成果를 올린다는 것이다. Ouchi의 이같은 理論이 Weber의 傳統的支配의 家父長(Patriarchal)의 支配나 카리스마的支配와 얼마나 差異가 있는지 檢討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確實하게 豫測할 수 있는 것은 産業組織內의 그 構成員 한사람 한사람, 즉 個人의 心理的事實을 解明하지 않고서는 市場統制나 官僚制統制나 또는 Ouchi의 徒黨統制도 限界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組織心理學이 必要하고 또 組織心理學의 研究結果는 生産組織에 관한 그 어떤 巨視的接近보다도 더 많은 貢獻을 할것으로 期待할 수 있는 것이다.

### 參 考 文 獻

- Albrow, M. *Bürokratie*, München, List Verlag, 1972.
- Allport, F. H. A structuronomic conception of behavior: Individual and collective structural theory and the master problem of social psychology. *Journal of Abnormal & Social Psychology*, 1962, 64, 3-30.
- Bertalanffy, L. von. *Zu einer allgemeinen systemlehre Blatter für deutsche Philosophie*, 1945.3/4.
- Bertalanffy, L. von. *General system theory*, New York: George Bragiller, 1968.
- Comte, A. *Cours de philosophie positive*, 1830.
- Durkheim, E. *De la division du travail Social*, 1897.
- Hall, R. H. *Organizations: Structure and process*. New Jersey; Prentice-Hall, 1972.
- Howell, W. & Dipboye. R. L. *Essentials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Illinois; The Dorsey Press, 1982.
- Katz, D. & Kahn, R. L. *The social psychology of organizations*, (1st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1978.
- Leavitt, H. J. Toward organizational psychology. In B. von H. Gilmer (Ed.), *Walter Van Dyke Bingham Lectures*. PA.: Carnegie Institute of Technology, 1969, 23-30.
- Leavitt, H. J. & Bass, B. M. Organizational psychology.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964, 371-399.
- Ouchi, W. G. *Theory Z*, M.A.: Addison-Wesley, 1981.

- Peter, L. *Sociology in social work*, London, 1966.
- Pleffer, J. *Organizations and organization theory*. Boston: Pitman, 1982.
- Pondy, L. R. & Mitroff, I. I. Beyond open system models of organization.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1978, 1, 3-39.
- Pofter, L. W. Lawler III, E. E. & Hackman, J. R. *Behavior in organizations*. New York: McGraw-Hill, 1975.
- Schaffle, A. E. *Bau und Leben des sozialen Körpers*, 1985.
- Smirich, L. Concepts of culture and organizational analysi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983, 28, 339-358.
- Thompson, J. D. *Organization in action* New York: McGraw-Hill, 1967.
- Williamson, O. E. *Marketstand hierarchies; Analysis and antitrust implications*. New York: Free Press, 1975.
- Wundt, W. *Völkerpsychologie* (Erster Band), Die Sprache Stuttgart; Alfred Kröner Verlag, 1900.